

저마 (Ramie) (2)

모시의 기능성은 첫째, 흡습성과 발산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가령 땀에 흠뻑 젖어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상쾌한 촉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특성 때문에 겉옷뿐 아니라 내의용이나 침구용으로 인기다.

둘째,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의 소재다. 시원하다는 것은 촉감은 물론 통기성과 발산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습기를 재빨리 흡수하고 재빨리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빼앗는 기화열 때문에 시원해진다. 시원하다는 느낌은 열전도율이 크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이다. 이 성능이 습기가 많고 무더운 여름날에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소재가 되는 조건이다.

셋째, 모시의 광택이다. 광택이 좋다는 것은 섬유의 중합도와 결정화도, 배향도가 좋다는 것이다. 섬유소 섬유의 중합도란 포도당(단량체) 개수로 나타낸다. 고분자물질에는 결정 부분과 비결정 부분이 있는데, 결정화도란 결정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향도란 섬유 안의 분자가 섬유 체인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모시 섬유의 광택이 많다는 것은 면이나 레이온 등에 비하여 앞에서 말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모시는 정련 표백을 하고 나면, 실크와 같은 광택이 나고 백도(白度)가 증진되기 때문에 견마(絹麻)란 이름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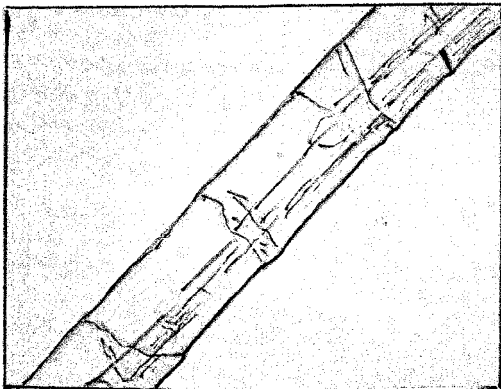
넷째, 모시는 질기다. 모시는 천연섬유 중 가장 큰 강도와 영률(Young's Modulus)을 갖고 있으며, 물에 젖으면 건조시 보다는 강도가 50%나 더 커진다. 아울러 고온 고압의 세탁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업무용 유니폼이나 고급 호텔의 여름용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모시의 굵기는 18-30 μ m, 길이는 70-250mm다.

특히, 세번수 모시로 만든 치마 저고리는 보는 이도 시원해 보이지만, 한 여름의 여인의 모습을 한층 시원하고 아름답게 꾸미며 우아한 멋을 나타내기도 하는 고급 소재다.

아마와 저마의 성능을 면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자료:섬유기술 Data 집)

♣(공석봉)

항목	저 마	아 마	면
비중 (gr/cm ³)	1.50	1.50	1.58
공정수분률(%)	12	12	8.5
섬도(d)	4.5	2.0	1.8
강력 (표준) (gr/d)	6.5	5.6-6.3	3.0-4.9
강력 (습윤) (gr/d)	7.7	5.8-6.6	3.3-6.4
영률 (gr/d)	185-405		68-93
흡수율(포화증기4h)(%)	24	8.5	29.0
발산률 (그늘건조3.5h)(%)	100	88	78
섬유장(mm)	20-200	20-30	25-45



저마의 측면



저마의 단면